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http://www.chungpa.or.kr)

#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주의 전에 나올 때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41.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의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사람의 마음 속 생각을 날같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 것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터전이 흔들리는 세상에 살면서 입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비에 씻긴 하늘과 대지를 바라볼 때의 청신한 기쁨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십시오. 사랑과 관용의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 주십시오.

주님,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꿈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영혼이 지긋지긋한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의 세계로 날아오르게 해주십시오. 죄의 손아귀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거짓과 불의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고,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서는 불굴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롬8:33-34 ..... 인도자

♠ 교 독 문 ..... 5. 시편 13편 ..... 다함께

♠ 영 광 송 .....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I. 하진솔 선생 II. 장영숙 전도사

응 답 송 ..... 찬양대

찬 송 ..... 342. 어려운 일 당할 때 ..... 다함께

성경봉독 ..... I. 왕상21:1-16 ..... 인도자

II. 시4:1-8 ..... 김인걸 권사

찬 양 ..... 찬양대

말 씬 ..... I. 화수분 ..... 김재흥 목사

II. 주님의 환한 얼굴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함께

- 현신의 찬송 ..... 441. 비바람이 칠 때와 ..... 다함께
- 헌금봉헌 ..... <연주: 윤주원/이혜명> ..... 다함께
- ♠ 봉 헌 송 ..... 69. 나 가진 모든 것(1,2) .....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근심과 불안, 그리고 근거 없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굳게 의지하십시오. 선과 평화를 구하는 데 있는 힘을 다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이제부터 노여움을 버리고, 격분을 가라앉히고, 불평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간직한 채 흔들림 없이 걸겠습니다. 우리 앞길에 주님의 환한 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아멘.

- ♠ 결단의 찬양 .....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 다함께
-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동호회 활동	성서의 평화(26)/김기석 목사
아름답도다, 형제 자매의 사귄!	기도 : 장재영 집사

<b>다음 주 예 배 위 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장영숙 전도사 김기석 목사	김민주 선생 조병무 장로	인도자 김근종 권사

<b>5월</b>	영접위원	구성실	이인웅	오진훈	노순옥	문인옥	이건화
	헌금위원	윤석철	김정길	김용길	최숙화	강순배	문인옥

## ■ 믿/음/으/조/워/는/글/

### 하나님은 진리이고 사랑이다

나에게 하나님은 진리이고 사랑이다. 하나님은 윤리이며 도덕이다. 하나님은 두려움 없음이다. 하나님은 빛과 생명의 근원이지만, 이 모든 것 위에 그리고 이 모든 것 너머에 계신다. 하나님은 양심이다. 하나님은 심지어 무신론자의 무신론이기도 하시다. 하나님은 말과 이성 너머에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적인 현존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시고, 당신을 만지기 원하는 이에게 몸을 내어주신다. 하나님은 가장 순수한 알짬이다.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며 우리 너머에 계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은 인내하지만, 그분은 또한 엄격하시다. 하나님께 무지는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용서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뉘우칠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은 세계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지 않고’ 악과 선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맡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껏 알려진, 가장 지독한 폭군이기도 하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고, 자유 의지를 구실삼아 우리를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남겨두고는 당신의 즐거움을 채우시기 때문이다.

### 보이지 않는 힘

모든 것에 두루 퍼져 있는 형용할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 볼 수는 없지만 나는 그것을 느낀다. 이 보이지 않는 힘은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기는 하지만 일체의 증거는 거부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것들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감각들 너머에 있다. 그러나 제한적이기는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해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해도 하나님은 단지 지적인 만족만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은 마음을 주관하고 또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의 가장 하찮은 몸짓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이것은 오감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참되고 명확한 깨달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우리에게 진짜처럼 느껴질지라도 감각의 인식들은 잘못이거나 거짓일 수 있으며 또 그럴 때가 많이 있다. 하지만 감각 너머에 있는 깨달음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그 깨달음은 외적 증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드러내는, 온전히 변화된 행동과 성품에 의해서만 증명된다. 이런 증거는 세계 도처에서 끊이지 않고 명맥을 이어온 예언자와 현자의 삶 속에서 발견된다. 이런 증거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 목숨을 내걸고 악과 씨름하지 않는다면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늘 변하고 죽어가고 있는 동안에도 그 모든 것들의 바탕이 되면서 변하지 않고, 그것들을 붙들어주고, 창조하고, 파괴하며, 재창조하는 살아있는 힘이 있음을 나는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다. 생명을 불어넣은 이 힘과 영靈이 하나님이다. 단지 감각을 통해 인식하는 것들은 어떤 것도 존속하거나 존속될 수 없기에, 하나님은 홀로 참되시다.

그렇다면 이 힘은 선한가 악한가? 나는 그것이 옹근 선이라는 걸 안다. 죽음의 한가운데 생명이 있고, 비진리 한가운데 진리가 있으며, 어두움 한가운데 빛이 있음을 나는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나는 하나님은 생명이요 진리이며 빛이시라고 믿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한 내 목숨을 내걸고 악과 씨름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리란 사실도 나는 알고 있다. 부족하고 제한된 경험이나 그 덕분에 내 신념은 확고해졌다. 내가 순수해지면 순수해질수록 더욱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나의 믿음이 지금처럼 명색뿐인 것이 아니라 허말라야 산맥처럼 확고부동하고 그 정상의 눈처럼 희고 밝게 된다면, 내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머물게 되겠는가?

---이 글은 존 디어 John Dear가 마하트마 간디의 글 가운데서 그의 사상을 잘 드러내는 구절들을 뽑아서 엮은 [내 삶이 내 메시지] 중에서 옮겨왔습니다.

# 아무나 보듬고 싶다

김준태

이제 아무나 보듬고 싶다  
무식하게 정말 일자무식하게  
사람이여 환장하게 좋은 사람이여  
아무나 보듬고 설레이고 싶다  
그리하여 더욱 아무나 보듬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라는 놀라움을  
강물에 입술 적시듯 노래하고 싶다  
생명이여 생명의 소중한 것들이여  
이제 나는 아무나 보듬고 싶다  
사람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면  
이제 나는 아무나 보듬고 싶다  
우리가 너무 깊이 보듬어  
마음에 행여 가시가 박힌다손  
육신에 행여 손톱자국이 머무른다손  
생명이여 생명의 소중한 눈동자여  
사람의 뼈는 하늘의 하늘의 기둥!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한완식 임정자 김준호 곽혜자 권호천 배상순 김혜권 이봉옥 김창원  
정지은 이유선 방극숙 이광용 형인순 왕성환 강순배 권미숙 장성호

### 월정헌금:

고속이 김미순 김정애 김종문 지명주 문금석 박찬정 배부례 조순덕  
황경순 류건형

### 감사헌금:

윤정덕 박옥식 장영숙 박성욱 이옥희 권미숙 박규석 박경선 노용래  
오정숙 이정은 문금석 백묘현 이봉옥 정복순 정두리 정완수 김재광  
박창운 허정윤 왕성환 강순배 허경기 한지혜 박혜경 한선희 박시내  
나오미선교회 시므온 선교회

### 100주년 기념 감사헌금:

장영숙 안기덕 최선우 임원민 백혜숙 이은자 유증희 이종현 김창원  
정지은 이증자 김창경 김재흥 최희영 한상익 정영선 김인걸 문영혜  
박병구 (누계: 66,960,000원)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장 혜 숙	차 혜 심	장 혜 숙	정 두 리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김 미 순	김 영 한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정 복 순	이 소 순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박 경 선	이 명 희
갈 릴 리	안 정 숙	박 애 순	안 정 숙	박 옥 순
베 다 니	박 흥 재	곽 권 희	김 춘 려	김 순 복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박 효 선	홍 복 선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이 갑 재	최 숙 화
에 베 소	이 순 정	김 금 순	강 순 배	이 봉 옥
빌 립 보	이 형 숙	권 미 숙	권 미 숙	이 형 숙
가 버 나 움	안 흥 숙	오 현 정	정 현 주	임 수 연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정 옥 영	백 혜 숙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박 옥 식	송 양 진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이 영 란	이 봉 배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최 영 혜	조 향 미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웨슬리 회심주일** : 오늘은 존 웨슬리 목사의 회심 26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는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한국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 **동호회** : 오후 집회는 동호회 활동으로 대신합니다. 좋은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 **기획위원회** : 오후 1시에 담임목사실에서 모입니다.
4. **점심** : 상수도 공사관계로 단수가 되어 오늘 점심식사는 떡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5. **절기** : 이번 주일로 부활절기가 끝나고 다음 주일은 성령강림절기가 시작됩니다.
6. **웨슬리집회** : 중구용산지방 선교부가 주관하는 집회가 27일 오후부터 30일 저녁까지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일신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회는 화요일 저녁에 안내를 맡았습니다.
7. **신앙실천** : 5월 13일은 맨발로 흙을 밟는 날입니다. 꼭 오늘이 아니라도 아름다운 생명의 계절에 맨발로 흙을 밟으며 생명의 기운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 헌물 (화분) : 익명의 교인

\* 떡 : 장영숙 전도사, 익명의 교인

\* 토요 주방봉사(26일) : 박정숙, 김현미

\* 캄보디아 우물 기부 신청자 : 김창원(결혼기념일), 송임희(생일), 김준우(결혼기념일), 윤석철 장혜숙(결혼기념일)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